

12 대학	3 대학	6 사회	8 문화
분리수거, 해야돼? 말아야 돼?	시각각 교육원, 만능진 자료 문제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인터뷰	신해철이 그만의 언어로 말하는 대학문화

홍 이사장, 지난 5일 면담 요청 거부

서울총학, 면담거부에 이사장실 점거

홍일식 이사장이 지난 5일(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요청한 면담을 거부했다. 이사장이 학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40여명의 서울배움터 학생들이 홍일식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홍 이사장은 "학생들이 많은 분위기 속에서 면담할 수 없다"라며 거절했다.

부총학생회장 장정훈(중앙·중국어 98)군은 "유예에만 수차례 면담요청을 했지만 '학생들이 나서면 면담한다' 위협적인 플랜카드를 들고 사과했다'며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고 전했다. "지난달 열린 이사장에서 이사진 구성에 관한 안전조치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때 이사장들에게서 재단개혁에 대한 의지를 찾을 수 없다"며 "내내외적으로 홍일식 이사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

생회장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군은 그 자리에서 "이사장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재단개혁을 무시하고 자체시켰다. 지금부터 학생들은 관선이사들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면담을 거부한 이사장에게 있다"고 단언했다.

이날 이사장실에는 재단개혁을 열망하는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이사장을 규탄했다. 학생들은 약 3시간에 걸쳐 이사장실에서 "재단개혁을 완수하라" "홍일식 이사장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김국현(01)군은 "오늘이 종교개혁기도 수능날이다. 내 동생도 외대에 올 가능성이 있는데 후배들에게는 재단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교수들

이 모두 모여드는 것을 보고 행정학과 학생회장 고현호(01)군은 "가장 시급한 재단문제에 대해서는 시론적인 반응을 보이더니..."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 총학, "이사장 재단문제 걸림돌"

지난 5일(수)에 있었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의 면담요청과 이사장실 점거는 그동안 구성원들의 합의가 유력한 5:3:1 방안에 대해 거부하고, 거듭된 총학의 면담요청을 거부한 이사장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3:1 방안이 합의되고 있는데 이사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학측은 "재단문제 관련해 이사장이 사사건건 이유를 대며 재단공영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재단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관선이사들의 임무는 구성원들의 재단개혁의지를 존중해 완수하는데 있는데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사장에서 이사진 구성에 관한 안전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총학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총학은 대내외적으로 홍일식 이사장을 규탄하고 의견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사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는 10일(월) 재단관련 문제가 전한되는 것 아니라고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총학측에서는 "관선이사들의 재단개혁 의지는 없다고 본다. 교육부가 직접 교수·학생·직원에게 추천 의뢰하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 것이라고 전했다.

(외대학보)에서는 이사장과의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

강경신 기자
shini18@hanmail.net

용인배움터 본관 1층 천장 무너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지난 5일(수) 오전 10시 경 용인배움터 본관 1층 천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이 시작된 뒤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은 보일러실의 '노후'였다. 용인배움터 총무처 관리과 채수문 주임은 '별크크의 물을 대위 그 수증기로 허리를 작동한다. 그 과정에서 파이프의 물이 새 연소되고 있던 가스가 끼였는데 다시 점화하면서 폭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현재 본관 1층 천장속 가스관이 평행해 천장이 무너지고 돌린 상태다.

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은 불안해했다. 주지회(사유권·영어 01)방은 "2층에서 수업을 듣는데도 소리가 크게 들려 불안했다"며 "관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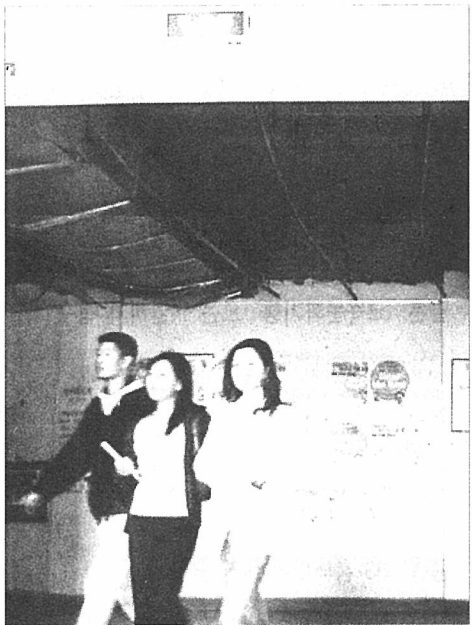
안전 관리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원(자연·전자공학 01)군은 "학교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과 채수문 주임은 "현재 보일러가 2개라 한쪽만이 폭발했으므로 난방에는 문제가 없다"며 "일주일 내에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전했다. 채 주임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관리과에서는 보일러를 내내를 교체하기로 했으며 타건물의 보수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현장을 지나가던 김호태(인문대학 03)군은 "공식하는 줄 알았다"며 "이런 큰 일이 발생했는데 안내로나 사파만 하나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brentgore@hanmail.net



무너진 본관 천장 아래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위험해 보인다.

인문대 학생회장 이동현군 석방

지난 6일(목), 서울지방법원 형소 6부에서 열린 최종공판에서 용인배움터 인문대 학생회장 이동현(사과 01)군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군은 지난 7월 25일 전국학생투쟁연대 결사대 5명과 서울 용인로 극동아파트에서 사범부에 진입해 '비국외의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을 촉구하다가 현장에서 손과 경찰서로 연행. 다 음날 국가안전보장법 위반 및 집단행위법과 폭

력행위로 구속됐다. 7월 27일(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받았으며, 이어 9월 5일(금) 1심 최종공판에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군은 이와 같은 판결 내용이 기존의 관례를 벗어난 사법로 판례다.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번 공판결과에 대해 이 군은 "장기 책이 농후한 판결로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겠다"며 선고한 뜻을 밝혔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서울 총학생회 투표일

서울 총학생회 투표일

양 배움터 총학생회 투표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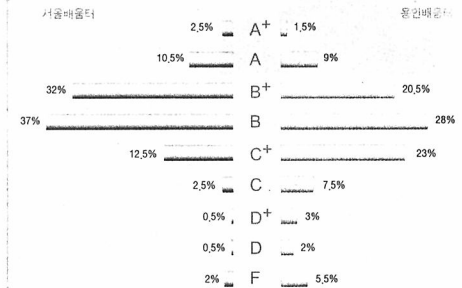
주사위는 던져졌다!

당신의 선택은?

민족자주론

외대학보

당신이 원하는 학생회는?



※ 학생들이 매긴 양배움터 총학생회 학점

평점이 4.5점인 '총학생회'를 받으요? 그럼 평점이 3.14, 2.78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외대학보)가 실시한 양배움터 총학생회 평가 설문조사 결과, 서울배움터 37대 총학은 4.5만점에 3.14, 용인배움터 24대 총학은 2.78의 점수를 각각 받았었다.

작년 이맘때쯤 서울배움터는 재단공영화와 실현, 여성복지 시설 개선, 도서관 사서와 방직, 이학연수·해외연수의 기회 등을, 용인배움터는 장기적인 문화공연, 재단공영화와 실현, 교통편의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양배움터 총학들이 작년에 입후보시 내걸었던 공약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도서관 사서와 방직, 여성복지시설 개선 부분(5점) 만족에 3.6점이,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장기적인 문화공연 및 공연과 방직부분(5점)만점에 3.3점의 공약을 잘지켰다고 나왔었다.

반면, 서울배움터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장년실업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5점)만점에 2.72점을, 용인배움터 학생들은 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5점)만점에 2.17점을 가장 안 지켜진 공약으로 꼽았었다.

또한 (외대학보)에서는 바람직한 학생회의 '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거철마다 투표소가 한산한 이유는 총학생회는 '거기서 거기'라는 학생들의 생각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대요. '학생들이 바라는 학생회 상'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총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잘 안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52%(10명)로 가장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학보)는 이번에서 '외대생이 원하는 '총학생회'는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하려 합니다.

마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총학생회가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는 '과·단대학생회를 통한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었다.

현재 용인배움터는 총학생회 후보등록이 급난 상태이고 서울배움터는 13일(목)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합니다.

11월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이맘때 즈음이면 이제적으로 총학생회 1년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번에서는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회를 제시함으로써 자기 학생들이 '학생들과 가리갈 없는 학생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관련기사 4, 5면
(주제기획)

기여우대제,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한사람에 20억씩 10명이면 200억.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화장장에 어느 학생이 기여우대입학제를 도입하자며 써놓은 낙서이다. 이 낙서가 실제로 이관(관)된 매체마다 들어오는 200여원은 학교발전의 결실로써 재정적인 문제를 살고 있는 우리대학 학자에서 담당한 제안이 아닌 수 없다. 실제로 대학이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재정이 부자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기여우대입학제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금), 우리대학의 대표로 사학인 고려대와 연세대에 '기여우대입학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에 앞장서자만 반면에 우리대학에 들어오지 못했던 연세대로부터는 물론이고 동지개 생긴 것이다. 김우식 연세대 총장은 "우리 대학에 정 부의 지원을 너무 못 받고 있다"며 재정적 위기를 한 방법으로 '기여우대입학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부자가 미진하다고 밝힌 것은 물론이지만 해결책으로 기여우대입학제를 들고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대학 대표 사학인 고려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우리 학교에 장학금과 기여우대입학제 같은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기여우대입학제라는 이름있는 것만으로도 기부금이 급증해 대학이 전자가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이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그 부자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업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의 특'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기부금을 내게하기 전에 사는 정부나 대학에 대한 부자와 지원을 늘려 해결하는 학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또한 대학교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부금과 장학금 같은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잃고 기득권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부금과 장학금 같은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잃고 기득권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부금과 장학금 같은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잃고 기득권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족자주론

외대학보

이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박은혜

“세계의 여러 유명한 브랜드와 경쟁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광고를 기획하고 싶다”

올해 ‘2회 제1회 대학생 광고 대상 대회’ 작품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권오준(동학·중국어 97) 군이 전한 말이다. 지난 7일(금) 용인배움터 이문관 식당에서 만난 권오준은 밝은 미소와 큰 포부를 가진 학생이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한 카피회사의 카피치노 재품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배너 광고 부문에 참가했다. 이번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그는 “이번 재품은 20대 초중반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의 특징을 잘 살려야 한다는 점이 광고의도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의 아이디어는 같은 팀을 이루는 사람들과 카피치노를 먹으면서 번득였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거품으로 인해 대개 고정되어 있다가 점점 거품이 사라져 막대기 쓰러지는 과정을 보면서 어렸을 때 마시는 모래놀이와 비슷한 과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거품으로 즐긴다’라는 카피로 작품이

완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권오준은 어려서부터 영상쪽으로 관심을 많았다. 광고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시절 눈병에 막대를 올려놓으면서 다른 재품과 실제적인 비교를 보여줬던 한 회사의 ‘마스크’ 광고를 본 순간이다. 그 이후 대학교에 들어와 광고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광고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직접 작품을 만들어 공모전에 출전도 했다.

그의 공모전 수상 경력은 군대 시절 때 스포츠신문에서 우연히 본 ‘아시아 항공 광고 공모전’에 참가해 장려상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 이후에 2002년도에 제1회 대회에서 실시했던 ‘2회 대학생 광고 대회’ 기획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권오준은 “현재 한 광고회사에서 특사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상태라 그만두려는 이 회사에 들어가 광고 뿐만 아니라 홍보와 기획 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어대를 전공하는 학생인데 전공을 살려 중국에서 광고를 해 볼 계획은 없다는 질문에 “광고는 한 사회의 문화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고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는 “대학생은 젊음이라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학생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며 “그 기회를 아깝지 않게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혜 기자

peh1206@hanmail.net

오는 16일 조정부창단 40주년 영화시사회 열려

서울배움터 조정부 창단 40주년 기념 영화시사회가 오는 16일(일) 오후 4시 충무로역 내 촬영연구소에서 열린다.

이번 시사회에서는 일본영화 ‘Give it All (원 제목: がんばっていきまっしょい)’이 무료로 상영되며, 관람을 원하는 학생은 15일(토)

까지 조정부 주창에게 신청 할 수 있다(016-9292-1700). 조정부 주창 유지영(사양·서번아어 00)군은 ‘일본영화에 관심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www.hudarowing.com

사법상 옹쟁호투(축구대회) 경영학과가 우승

서울배움터 사법상 옹쟁호투 축구대회에서 경영학과가 우승했다. 지난 5일부터 7일(금)까지 사법학과관 3개 단과대학 7개 학과의 친목도모와 활발한 교류를 마련하기 위해 펼쳐

진 이번 경기 결승전에서 경영학과는 무역학과를 3:0으로 물리쳤다.

전날 열린 4강전에서 경영학과는 행정학과를, 무역학과는 법학과를 이기고 올라왔다.

오는 13일, 포르투갈어과 가요제 열려

포르투갈어과 가요제가 오는 13일(목) 오후 5시 30분에 서울 배움터 대학원 소극장에서 열린다.

포르투갈어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가요제는 포르투갈어 학생들의 1년을 정리하고 단합과 결속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이번 가요제 신청은 13일 당일까지이다. 이

번 가요제에서 1등을 한 학생은 문화상품권 7만원을, 2등은 5만원, 3등은 3만원을 부상으로 받는다.

이번 행사를 담당하는 학생회장 박세영(서양·포어 98)군은 “포르투갈어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다른 학생들의 많은 향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하얀공간 주최, 정기미전 열려

오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오후 6시까지 미술동아리 하얀공간이 주최하는 ‘정기미전’이 열릴 예정이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한해동안 갈고 닦은 새내기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진다.

이번 작품에는 새내기들의 태도와 그 의 학생들의 수제와 유휴 등 부분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정기미전에 대해 하얀공간 회장 김중훈(정보산업공·정보통신공학 98)군은 “가을인데 마음의 여유를 그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협합동아리 도비 오는 10일(월) 공연

서울배움터 협합동아리 도비(DOBY)가 오는 10일(월) 오후 6시30분 대학원 소극장에서 공연을 갖는다.

도비의 이번 공연은 기존의 록(Rock)위주 공연에서 벗어나 춤과 함께 뮤지컬형식으로

진행된다.

도비의 회장 고은태(동양·대국어 02)군은 “공연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공연을 시도한 만큼 모두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교육문화기행’ 오는 14일까지 접수

2003년 교육문화기행이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주최로 올해 겨울방학부터 처음 실시된다. 이번 기행에는 일본으로 결정됐다.

팀 당 3명으로 총 7팀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접수는 총학생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가능하다. 응모분야는 경제, 경영, 인문, 사회 등 분야이며 참가자원은, 탐방 연구서, 탐방계획서, 탐방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8일 발표되며 선발된 팀에게는 240만원 상당의 항공료 전액 및 소정의 탐방활동비가 제공된다.

이번 기행의 총책임자인 김재홍(사법·영어 교육 99)군은 “동북공정 투쟁을 통해 얻은 소득이다. 아직 홍보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나 학생들의 관심에 힘입어는 추세이다”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용인 FBS 홈페이지개국 행사

오는 11일(화) 용인배움터 외대교육방송국 홈페이지 개국기념 행사가 열린다. 후북관 앞에서는 스타크래프트 본선대회와 다카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후북관 4층 소극장에서서는 열린다큐멘터리 상영한다.

이와 관련 외대교육방송국 국장 김소운(서유럽·독일어 01)장은 “예정부터 홈페이지를 기획했다”며 “이번 홈페이지 개국으로 인해

방송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연출을 맡은 제작부 이민용(서유럽·불어 02)장은 “한달 넘게 기획해 왔던 것이 성사를 이뤄 기쁘다”며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배움터 보건소 건강검진 실시

서울배움터 학생보건소(학생회관 1층)에서는 오는 17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악에 걸쳐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X-선 검사’를 실시한다.

복부 초음파 및 위장 조영촬영 대상자는 14

일(금)까지 접수받고 이외의 모든 검사는 당일 검진에 가능하다고 한다. 검진 결과 및 의료 상담은 11월 28일(금)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진행된다.

손발 사랑회 동아리 오는 14일 공연

오는 14일(화) 늦은 6시 용인배움터 재대강당에서 수화동아리 손발사랑회가 주최하는 정기 수화발표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노래와 연극 두 부문에서 동아리생각을 하면서 생기는 사람과 우정들을 보여줄 예정이

다.

이번 발표회에 대해 손발사랑회 회장 배혜미(서유럽·독일어 02)장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화하는 또 다른 언어를 통해 ‘정’에 대해 다시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온누리주최 전통차집 오는 11일부터 열려

오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3일간 용인배움터 공대 2층 휴게실에서 늦은 6시까지 온누리가 주최하는 ‘전통차집’이 열릴 예정이다.

온누리는 민족 침순인 수족장을 연구·보급하며, 올바른 학을 통한 참된 마음과 건강 한 사회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겨울방학 기간 중에 갖게 되는 의료봉사활동 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익사업이라고 한다.

회장 강도현(정보산업공·컴퓨터및정보통신공학 03)군은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인해 이번 의료봉사활동의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용인배움터 본관 1층의 쓰레기통 쓰레기를 버리려던 학생들을 잠시 주춤케 만든다.

박지혜 기자 brentgore@hanmail.net

오는 13일, 14일 용인배움터 공대 학술제 열려

오는 13일(목)~14일(금) 이틀 간 용인배움터 공대 1층 로비에서 ‘2003 공대 학술제’가 열릴 예정이다. 공대에서 열리는 학술제는 컴퓨터 여러 분야의 자신이 갖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고 평가 받는 계기가 된다.

이번 학술제에는 컴퓨터공학과 3팀, 정보통신공학 4팀, 산업공학과 2팀, 전자공학과 2팀, 디지털정보공학과 1팀이 출전해 경쟁을 할 예정이다. 그 수상으로는 금상(1팀) 30만 원, 은상(2팀) 30만원, 동상(1팀) 10만원이 수여된다.

14일(금)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벤트행사로는 ‘정보 검색 대회’와 ‘태극대(전국대)전’ 출품작이 선보일 예정이다.

또, 학술제를 보러온 모든 학생에게는 시디 케이스(5장)를 기증함으로써 줄 예정이다. 이번 학술제의 담당 현민규(정보산업공·정보통신공학 96)군은 “공대에서 진행되는 학술제는 공대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이 참가 할 수 있다”며 “다른 계열대원들도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배움터 과·단대 선거결과〉			
- 서울배움터			
	후보추천 및 등록	운동기간	투표
중국어	-	-	11, 12(수)
아랍어	-	11, 10(월) ~ 13(목)	11, 14(금)
터키어	-	-	11, 7(금) 당선자 - 소문전(02)
인도어	-	-	11, 11(화)
태국어	-	-	11, 12(수)
베트남어	-	-	11, 14(금)
정치외교	-	-	11, 12(수)
불어교육	-	-	11, 12(수)
- 용인배움터			
	후보추천 및 등록	투표	
서유럽대	~ 11, 11(화)	25(화) ~ 27(목)	
동양학대	-	-	
자연대	~ 11, 14(금)	26(수) ~ 27(목)	
정보산업공과대	~ 11, 10(월)	-	
동아리연합회	11, 10(월) ~ 13(목)	26(수)	
모현학사	11, 10(월) ~ 16(일)	24(월) ~ 25(화)	
생활협동조합	-	25(화) ~ 27(목)	
영어	-	18(화) ~ 19(수)	
플러머	11, 12(수) ~ 14(금)	25(화) ~ 27(목)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요일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월 (10일)	서울유지국립 (W1,400)	영국수주국립 (W1,400)	미르카바지스 (W1,400)	순두부국립 (W1,300)	소고기국립 (W1,500)	간식국립 (W1,200)
화 (11일)	불고기국립 (W1,400)	탕수국립 (W1,500)	비프카바지스 (W1,400)	생선탕 (W1,500)	산채비빔밥 (W1,400)	소고기국립 (W1,200)
수 (12일)	바삭치킨국립 (W1,400)	소고기국립 (W1,500)	포크카바지스 (W1,500)	산채비빔밥 (W1,500)	갈비탕 (W1,600)	짜장면 (W1,000)
목 (13일)	오징어국립 (W1,400)	참치국립 (W1,500)	치킨국립 (W1,600)	복합국립 (W2,000)	김치국립 (W1,400)	우동 (W1,000)
금 (14일)	대우국립 (W1,400)	산채국립 (W1,500)	오뚜국립 (W1,500)	닭국립 (W1,400)	소고기국립 (W1,500)	바지국립 (W1,200)

용인배움터

구분	어 문 관			후 북 관		
요일	한식	양식	분식	일품	분식	양식
월 (10일)	갈비탕 (W1,800)	치킨국립 (W2,200)	라면 (W1,200)	돈육국립 (W1,800)	간식국립 (W1,300)	햄박스테이크 (W2,000)
화 (11일)	김치국립 (W1,800)	햄스테이크 (W2,000)	우동 (W1,300)	나물국립 (W1,800)	짜장면 (W1,300)	치킨국립 (W2,000)
수 (12일)	해물국립 (W1,500)	요육국립 (W2,000)	자장면 (W1,300)	민들레국립 (W1,800)	황국립 (W1,300)	김치국립 (W2,000)
목 (13일)	사골국립 (W1,800)	치킨국립 (W2,200)	떡국 (W1,300)	참치국립 (W1,800)	라면 (W1,300)	돈가스 (W2,000)
금 (14일)	오징어국립 (W1,500)	오뚜국립 (W2,000)	어묵 (W1,300)	콩나물국립 (W1,800)	김치국립 (W1,300)	햄박스테이크 (W2,000)

2003년 2학기 서울캠퍼스 FBS 외대교육방송국 방송 편성표

월	이심방송 (08:20~08:50)	점심방송1 (12:05~12:25)	점심방송2 (12:25~12:50)
화	아침의 신화	로컬 투 더 밤인타운	맛있는 재즈이(가)
수	&	월드 인 스포츠	호른의 선율위에
목	캠퍼스 네트워크	FBS 드라마	이문동 기행 (12:40~12:45)
금		FBS 뉴스	비문일 고문일 (12:35~12:45)
		영화의 인생이(가)	음악과 함께하는 오후

2003년 2학기 용인캠퍼스 FBS 외대교육방송국 방송 편성표

월	이심방송 (09:00~09:40)	점심방송 (12:10~12:30)	오후방송 (15:40~16:05)
화		팝스앨범	음악방송
수	아침의 신화	미소를 찾는 사람들	시네마리미디
목		뉴클레식	음악방송
금		영화가 흐르는 카페	시시콜라
		지구촌 음악여행	음악방송

시청각교육원 점검

자료 영어편중 심각... 소수어의 10배이상

학생, 다양한 자료 구비돼야

직원, 자료 구비와 더불어 학생들의 주인 의식 함양돼야

우리학교 시청각교육원은 지난 1992년 9월에 설립돼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육장소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시청각교육원에는 어학실 습실(서울배움터 27실, 용인배움터 13실), 시청각 강의실(서울배움터 27실, 용인배움터 13실), 영상·음향도서관 및 위성방송 시청실(서울배움터 3실, 용인배움터 11실), 시청각세미나실, 대강당, 소강당, 멀티영상실(용인배움터 어문학관 206호)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시청각교육원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준희(서양·독일어 98)군은 "시청각교육원 3층의 경우 DVD 시설과 사이버 스튜디오까지 있어 정작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음향도서관의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긴장 자료와 구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분류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강명민(상경·무역 99)군은 "자료의 대출 기간이 1박 2일밖에 되지 않아 너무 짧은 것 같다"며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연례를 하면 연례자료에 10일을 더해 그 날짜를 대출한 기간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근(서양·네덜란드어 03)군은

"시청각교육원의 자료가 영어나 중국어, 일어 같은 인지도가 높은 언어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며 "소수어의 언어자료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배움터의 경우 다른 언어에 비해 영어에 특히 많은 자료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참조). 영어의 경우 오디오테이프(11453점), 비디오테이프(7238점) 등 통틀어 22031점의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어는 3715점, 독일어는 2713점에 불과하다. 소수어과의 경우 자료구비는 더욱 열악하다. 네덜란드어의 경우 803점(오디오테이프 565점, 비디오테이프 183점, 교재 16점, CD 27점, DVD 7점)이 구비되었고 터키어의 경우 755점(오디오테이프 401점, 비디오테이프 168점, 교재 10점, CD 175점, DVD 1점)밖에 되지 않는다. 영어 자료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김근군은 "외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언어 자료가 구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청각교육원 임재현 과장은 "시청각교육원 자료를 구입하는데 있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기 어렵고 모든 언어자료를 다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언어자료를 구입하는데 있어 직원보다는 각 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매체를 통해 대부분의 외국에서 직접 사오거나 교수자 직접 구입해온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자료 확충에 대해 많이 소홀히 한다. 각 과 교수들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상·음향도서관의 시설관리에 대해 임재현 과장은 "자료실에 가끔씩 고장난 컴퓨터나 DVD플레이어 등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시청각교육원 안에 들어주면 바로

보내는 용도로써 있게 대처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청각자료실의 시설이 적은 것에 대해 그는 "시청각교육원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시청각 교실 시설 확충"이라며 "시청각교육원 2층이 이번엔 공사를 해서 시설이 많이 좋아졌지만 차츰차츰 고쳐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시청각

교재 한 다"며 "직원들이 항상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장난 시설을 보면 지나치기 말고 적극적으로 시청각교육원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각교육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헤드셋의 줄을 놓아거나 여러 개의 헤드셋을 꼬아 놓는 등 많은 학생들이 시설을 함부로 다룬다"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통해 설치하는 시설이나 주인 의식을 갖고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영상·음향도서관 자료의 대출기간이 1박 2일인 것에 대해 그는 "자료가 적은 만큼 자료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금요일에 빌리는 경우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융통성 있게 이용한다면 그런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례에 따른 대출제한 제도에 대해 그는 "모든 학생들이 일부러 연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조건 엄하게 대처하는 것

이와 학생과 교수에게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그것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시설을 함부로 다루는 학생들, 자기 과의 수업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교수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물론 학생들도 직원들에게 아쉬움이 많았다. DVD나 비디오 최신 프로의 늦은 구입, 짧은 이용기간 등을 학생들은 아쉬워했다. 시청각교육원은 우리 학교 구상안을 통해 개선하는 시설이다. "외대라는 이름에 걸맞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노력과 학생들이 시설을 아끼는 마음, 교수들의 자료를 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합쳐져야 가능하다." 시청각교육원 임재현 과장의 당부

의 말이었다. 학내 구상안 모두의 노력이 뒤따라 시청각교육원이 외국어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할 수 있겠다.

글·사진·고형영 기자
dha8272@hanmail.net



<시청각 자료 현황 통계표-서울배움터>

2003년 11월 5일 기준

매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네팔말어	타이어
오디오테이프	11453	2381	1733	969	1269	1497	696	503	565	401
비디오테이프	7238	1073	806	1104	436	228	1083	175	188	168
교재	1094	127	141	71	353	37	21	12	16	10
CD	558	98	10	9	96	20	26	0	27	175
DVD	888	36	23	344	83	0	0	0	7	1
합계	22031	3715	2713	2497	2237	1782	1856	690	803	755

의
대
·
만
·
평
<20>



허진

2004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일반전형

석·박사 학위과정 및 학사 학위과정

- 모집인원**
석·박사 학위과정 및 학사 학위과정
- 모집분야**
본교 홈페이지(http://www.hufs.ac.kr) 공지사항 참조
2004학년도 전기 신입생과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모의 면접)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출제지 참조
- 전형일정**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 2003. 11. 10(화) ~ 11. 14(토)
본교 홈페이지(http://www.hufs.ac.kr) 공지사항 참조
나. 면접시험 : 2003. 11. 14(토) ~ 11. 15(토) 본 대학원 교차
나. 전형인원 : 2003. 11. 25(토) 10:00
- 기타사항**
지원자격 및 구술시험 : 2003. 11. 11(화) 17:00까지 도착해야 함
나. 합격자 : 개별 통지하지 않음으로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나. 기입 합격자명단에 기재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기입하지
나. 기입 합격자명단에 기재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기입하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학년도 전기 일반전형 세계경영대학원(이전)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석·박사 학위과정 : 0명, 석·박사 학위과정 : 0명
- 모집학과 및 전형방법**

과정	학과	모집인원(석·박사)	전형방법
경영학석사	국제경영	1명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국제경영	1명	
경영학박사	국제경영	1명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국제경영	1명	
- 학위과정 특징**
가. 2년제 석사학위 취득 가능
나. 학위논문 제출해야 함
-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세계 경영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지원자격 : 세계 경영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 모집인원**
가. 석·박사 학위 : 2003. 11. 19(화) ~ 11. 20(수)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최종합격 : 2003. 11. 19(화) ~ 11. 20(수)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최종합격 : 2003. 11. 19(화) ~ 11. 20(수)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 2003. 11. 19(화) ~ 11. 20(수)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면접시험 : 2003. 11. 20(수) 10:00 ~ 11:00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면접시험 : 2003. 11. 20(수) 10:00 ~ 11:00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사항**
가. 지원자격 : 세계 경영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지원자격 : 세계 경영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지원자격 : 세계 경영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이전) 학생모집

석·박사 학위과정

- 모집인원**
석·박사 학위과정 : 0명, 석·박사 학위과정 : 0명
- 모집학과 및 전형방법**

과정	학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교육학석사	교육학	1명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교육학	1명	
교육학박사	교육학	1명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교육학	1명	
- 학위과정 특징**
가. 2년제 석사학위 취득 가능
나. 학위논문 제출해야 함
-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교육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지원자격 : 교육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 모집인원**
가. 석·박사 학위 : 2003. 11. 19(화) ~ 11. 20(수)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최종합격 : 2003. 11. 19(화) ~ 11. 20(수)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최종합격 : 2003. 11. 19(화) ~ 11. 20(수)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 2003. 11. 19(화) ~ 11. 20(수)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면접시험 : 2003. 11. 20(수) 10:00 ~ 11:00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면접시험 : 2003. 11. 20(수) 10:00 ~ 11:00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사항**
가. 지원자격 : 교육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지원자격 : 교육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지원자격 : 교육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학년도 전기 정책과학대학원(이전) 특별전형

석·박사 학위과정

- 모집인원**
석·박사 학위과정 : 0명, 석·박사 학위과정 : 0명
- 모집학과 및 전형방법**

과정	학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정책학석사	정책학	1명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정책학	1명	
정책학박사	정책학	1명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정책학	1명	
- 학위과정 특징**
가. 2년제 석사학위 취득 가능
나. 학위논문 제출해야 함
-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정책과학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지원자격 : 정책과학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 모집인원**
가. 석·박사 학위 : 2003. 11. 19(화) ~ 11. 20(수)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최종합격 : 2003. 11. 19(화) ~ 11. 20(수)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최종합격 : 2003. 11. 19(화) ~ 11. 20(수)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 2003. 11. 19(화) ~ 11. 20(수)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면접시험 : 2003. 11. 20(수) 10:00 ~ 11:00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면접시험 : 2003. 11. 20(수) 10:00 ~ 11:00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사항**
가. 지원자격 : 정책과학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지원자격 : 정책과학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지원자격 : 정책과학대학원(이전) 교육과정(석·박사)에 입학한 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배움터 37대 총학생회를 평가한다

서울 학생, “복지 사안 잘했다”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 취업대책 미비해



서울배움터 학생들은 37대 총학생회에 대해 B학점을 줬다.

〈외대학보〉는 지난 9일(수)부터 7일(금)까지 서울배움터 학부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올해 37대 총학생회가 내걸었던 핵심 공약인 등록금 투명, 계열제 철폐 및 학제 개편, 재단공영화 실현, 청년실업해법, 어학연수·해외연수의 기회, 반미반전 투쟁, 도서관 사석화, 여성복지사안 관련 복지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내놓은 공약이행 정도를 물었다.

총학, 학생들 복지사안에 힘쏟아

37대 총학생회는 도서관 사석화, 여성복지시설 관련한 복지사안이 5점 만점에 3.6점으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기원(사상·영어 02)군은 “도서관 사석화 문제를 해결하고 영화 시사회를 여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총학생회에서 신경 쓰는 것이 느껴진다.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도서관 사석화 반지를 위한 총학의 적극적인 책 치우기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반미반전 투쟁 또한 3.47점으로 2위를 기록했는데, 총학생회에서 반미반전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 이혜민(사상·노어 03)원은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사안에 관심을 갖고 뜻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나쁘게 보지 않는다. 단지 관심 없거나 원치않는 학생에게 권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단공영화화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

3.26점을 얻은 재단공영화와 실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병택(상경·경영 02)군은 “총학 내의 활동이 적극적이어서 좋았다. 교육부 원의 방문 등을 통해 재단공영화에 좀더 다가간 듯 하다”면서 “하지만 정확한 정보전달이 부족했고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내지 못했”이라고 전했다. 아직 재단이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끝까지 완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어학연수의 기회 부족해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어학연수·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가장 민감한 사안인 취업대책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최정환(사상·노어 02)군은 “연수의 기회”를 받는 학생들의 폭이 다양하면 한다. 성적으로만 평가받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기회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행정학과 학생회장 고현호(01)군은 “이번 겨울방학 때 교육문화기행이 이뤄지므로 이를 계기로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학과의 취업대책에 관해, 김기원군은 “취업관련 수업에서 학생을 매기는 것은 많이 되지 않는다. 총학에서 좀더 신경써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총학회의 활동을 아는 경로로는 대자보가 50%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했다. 그러나 ‘활동 내용을 알기 힘들다’는 학생들도 19%나 차지해 총학회의 학생들간의 거리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대학보가 냉혹하게 비판할 수 없어서 작년도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대책 했지만 외대의 취업대책 상태가 ‘F’이었기에 한계가 있었다. 학교차원에서 취업문제를 관심을 갖고 대학을 떠나는 것이 시급하다”라면서 재단공영화 실현에 대해서는 규성원들의 합의한 사항대로 마무리지어야 할 시기에 왔다. 적이 있는 싸움이 아니라 더욱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공영 재단을 건설하겠다는 목표하에만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다. 학생들이 재단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해도 또한 높다. 올해엔만 반드시 투쟁에서 승리해 재단문제를 마무리짓겠다.

서울배움터 학생들에게 한마디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노력했으나 부족함 점이 많았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학교에 있는 모든 가능성은 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학생회에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외대 발전의 초석이 될 재단 공영화화를 다 함께 이룩하자.

강경신 기자 shini10@hamail.net

영인 용인배움터 24대 총학생회의 한 해는?

학내복지·문화기획력 돋보여

학자추장 출마시, 의사수렴 과정없이 논란

지난 9일(수)부터 7일(금)까지 용인배움터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본보에서 실시한 ‘총학생회 평가 설문조사’에서 24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2.78”로 ‘C+’ 학점을 받았다.

공약부분에서는 재단공영화 실현, 다양한 어학연수의 기회, 교통문제의 해결 등 24대 총학생회가 내걸었던 핵심적인 공약들을 중심으로 이행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정기적인 문화공공과 반미반전 투쟁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해외연수의 기회, 재단공영화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양한 문화공공 행사 진행

24대 총학생회는 문화 기획력 부분에서 대중적의 기회, 반점영화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이목을 끌었다는 평이다. 하경원(사상·영인 01)군은 “학내에서 문화공공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주민의 참여가 높았고 2학기 때도 문화공공이 다양했다”고 말했다. 서유람대 전 학생회장 원종관(영인 08)군은 “23대에 비해 학내가 사정이 잘되었고 그 중 하나인 반점영화 페스티벌에서 큰 여명을 보았던 것은 높이 삼킨다”라며 문화 기획력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24대 총학생회는 공약 면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늘리는 것,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은 낮은 점수를 받았고 외대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단공영화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어학연수기회, 재단공영화 구체적 투쟁 없어

어학연수 평가부분에서 부족학생회장 이동수(인문·사학 00)군도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해외동문들의 정보를 자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현재는 준비가 안된 상태이다”고 말했다. 동양학과 학생회장 이지훈(인도어 08)군 역시 “해외연수 부분에서는 준비가 없었고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 해외연수의 기회를 늘리는 24대 총학생회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우리학교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재단공영화 실현 공약에 대해 부족학생회장 이동수군은 “학내에 용인배움터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재단공영화 투쟁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며 “재단공영화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르면 차기 학생회가 본격적으로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런 24대 총학생회는 전반적으로 반미반전 투쟁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유람대 전 학생회장 원종관군은 “반전메시지를 통해서나 신해철씨 등의 강연으로 학생들에게 잘 전달됐다”고 말했다. 또한 권오성(서유람·이



태리 03)군은 “반미반전투쟁은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는 없지만 여러 활동이 보기 좋았다”며 “학내 학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했다”고 전했다.

교통·식당문제 개선돼

복지부분에서 24대 총학생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경원(자연·생명과학 05)원은 “학내에서는 통학을 했고 지금은 모현에서 자취를 하는데 교통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 편하다”며 “특히 빵자랑은 장우현 한 학생에게 있다고 들었다. 또한 이선미(서유람·불어 01)원은 “어려운시간의 연장선상 등 식당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복지에 신경썼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학생지원처 총합담장 김재경씨는 “스물 버스중자가 큰 성과라 생각된다”며 “용인배움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중문우리의 의사수렴 충분히 못해 논란

지난 학기에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의 가장 논란이 됐던 일은 총학생회장 허완희(동유럽·노어 97)장의 현충원 학원자주와 추진위원장들이 일 것이다. 그 당시 이 일과 관련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지연대 학생회장 장호식(정보통계 01)군은 “학교를 책임져야 할 총학생회장이 현충원 학원자주에 찬성한다는 것은 원산에 회의의 지리가 비논리”이므로 반대했고 “비리 학자추장에 나가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중운위 위원인 단체대표에게 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장 군은 “이런 일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절차의 문제가 있었다”며 과정상의 문제를 비판했다. 이에 부족학생회장 이동수군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 하나만으로 불신을 문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총학생회장이 학자추장 할

등을 하면서 학내에 소출력 하지 않았고”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군은 “총학생회장은 700명 원산학생의 대의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뜻을 같이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학생들과의 ‘거리감’ 여전히 존재

24대 총학생회는 공약이행부분에서 위와 같은 평가를 받았지만 활동부분에서는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42.5%(85명)의 학생이 “활동 내용을 알기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총학생회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연대 학생회장 장호식군은 “중문우에서도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많았고 원산 학생 전체의 힘을 모으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종용(정보산업공·산업공학 08)군은 “총학생회가 하는 활동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총학 자체 활동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활동에 홍보와 설명이 많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중앙학과 학생회장 이지훈군은 “총학생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잘 안된 것 같다”고 평가하며 “차기 학생회는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좁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치는 학내에서 설문조사를 부탁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저 총학 잘 모르는데...”라는 대답을 들었다.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답이었다. 설문조사서 하던 알람은 서유람·영인 03)원은 24대 총학생회에 “C+”를 주며 “재수강이 필요하다”고 비판적으로 말하며 “남은 임기동안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지혜 기자 bntgre@hamail.net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

“‘우리 학생회’의 가능성을 봤다”

외대학보는 지난 7일(금) 설문조사서를 바탕으로 총학생회장 유복재군과 인터뷰를 가졌다.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실제 학생회와 학생들과의 거리감이 존재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중 사안을 학생들과 많이 접촉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학생들과의 괴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겼다. 그래서 하반기 대학교육개혁을 위한 62개 요구안을 지키려고 했고 오늘날로 100% 모두 이행했다.

가장 잘 된 사업을 꼽는다면

잘 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상반기 정기학생총회’를 꼽고 싶다. 회의가 성사되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총회

를 실시시키기 위해 과파학의 단원까지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 힘을 썼다는 것이 더욱 뜻깊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회’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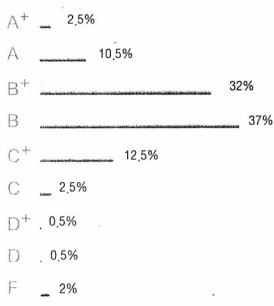
가장 잘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학생들의 직접적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실제 공약 가운데 복지 토론회 개방 찾아가는 학회초대만 이뤄지고 계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은 이통학생회나 서들 통해 학생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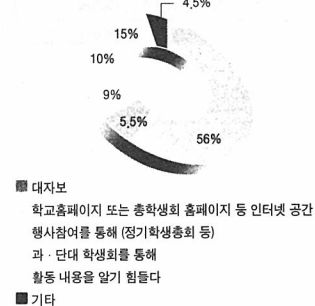
학생들은 총학에서 취업대책에 대해 미비하다고 평가하는데

사실 대학교에서는 학문을 탐구하는 곳에서 진리 추구를 목표를 둘 것이지 사회 현실에 맞닿을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다. 하지만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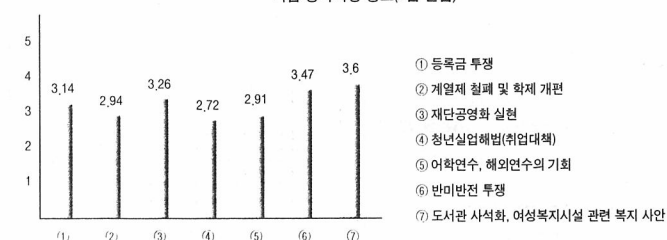
올해 37대 총학생회를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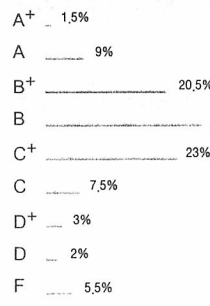
총학생회 활동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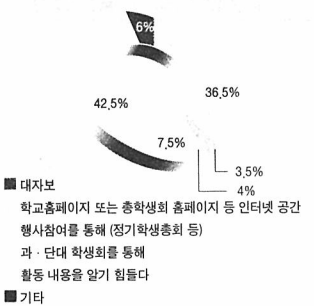
핵심 공약이행 정도(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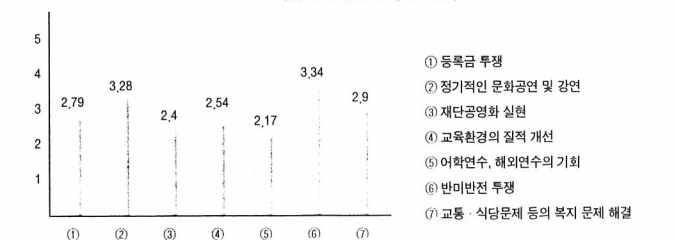
올해 24대 총학생회를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총학생회 활동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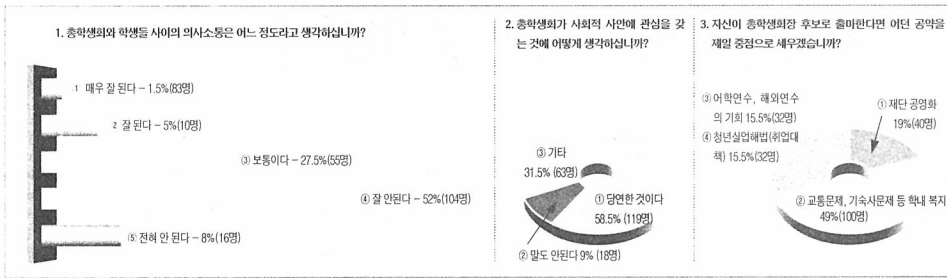


핵심 공약이행 정도(5점 만점)



내가 원하는 총학생회는?

A+ 총학생회? 해법은 대화



마지막으로 진행될 2004년 총학생회 선거를 맞이하여 (외대학보)에서는 양배울터 각 각 학부생 100명씩을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총학생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첫 번째 '총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 정도'를 묻는 질문에 '잘 안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52%(104명)였으며 27.5%(55명)가 '보통이다'고 응답했다. 또한, '매우 잘 된다'와 '잘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1.5%(83명), 5%(10명)이었던 것에 비해 '전혀 안 된다'라는 학생이 8%(16명)이나 나타나고, 이 대상 대부분은 총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두 번째 '총학생회와 공약과 이행'에 대한 질문에 서울메디터에서는 '현실 가능한 공약이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28%로 가장 많았고 '용인 배움터에서는' '현실 불가능한 공약이 많아서 지킬 수 없었다'는 의견이 31%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러나 양배울터 모두 '대부분 현실 가능한 공약이었으며 잘 지켰다'는 응답이 두 번째를 차지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괴리와 같은 사회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58.5%(117명)의 학생들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9%(18명)만이 부정적인 응답을 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표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 자신이 총학생회 후보라면 어떤 공약을 제일 중점으로 세우겠다'는 질문에는 '교통문제, 기숙사문제 등 학내 복지'가 양배울터 모두 가장 많은 응답인 49%(100명)를 차지해 '재단 공영화' 19%(40명)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공약이 학생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어학연수, 해외연수 기회'와 '취업대책'이 각각 15.5%(32명)씩 차지했다. 특히, '총학생회의 정치성'을 묻는 질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성향을 가져서는 안된다'라는 의견과 '다수의 학생들이 동의하면 괜찮다'는 의견이 각각 37%(77명), 19%(38명)로 조사됐으며 66%(130명)가 '학내의 정치집단을 포용하되 총학생회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응답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실시했던 형태와 유사한 포괄적 행정조직을 원한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나타난 총학생회가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으로는 과·단대학생회를 통한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많

은 응답을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공약을 이행할 만한 리더십으로 조사됐다.

다 학교 총학생회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과 경희대 총학생회를 만나보았다. 유 한해 학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박정현(응용 화학)군은 전국대학학생회연합(전대거)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총학생회를 건설하는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한국대학 중 유일하게 이라크 파병반대 동맹휴업을 성사시켰다. 동맹휴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루에 강의실 15개 이상 돌아다니는 정도로 학우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다며 학생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 87% 찬성으로 휴업을 전담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학생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선을 그어버리면 그만둘 학우들의 참여할 폭이 좁아진다. 학우들에게 내가 참여함으로써 뭔가 바뀔 수 있었다고 생각할 기회를 주자"고 전했다.

특히, 학내복지중심의 학생회와 정치중심의 학생회를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 대해 그는 "이 분법적 시각에 극구 반대하며 이런 시각은 하루빨리 깨야한다"며 학생회는 복지와 정치적

인 일을 둘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희대 부총학생회장 박익재준군은 "기본적으로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가장 사소한 것이지만 총학생회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빠른 답변을 하는 것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인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과의 논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과학생회와 총학생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역시 앞으로 세화될 총학생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 조은애(인문·사회)씨는 "총학생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총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를 시급하다고 전했다. 최두순(서양·노아)군은 역시 "학생들의 지지를 얻는 학생회가 되려면 학생복지와 정치적인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음 학생회는 청한받는 학생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현복(동양·타키어 98)

“학생들을 두루 아우르는 총학생회가 됐으면 합니다. 외대 상황에 적극적인 금상첨화겠지요”



송민준(성경계열 03)

“우리 학교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단 공영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학생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훈(사회·정생계열 03)

“총학생회가 좀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학생들을 포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창한 것보다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학생회였으면 합니다”



이창훈(인문·사학 01)

“학생들의 의견이 과학생회를 통해 단대학생회를 거쳐 총학생회로 수렴되는 그래서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활발한 학생회였으면 참 좋겠어요”



유성근(서양·노아 00)

“재단문제 뿐 아니라 학내복지 사안, 수업 커리큘럼 등에도 힘을 쏟는 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안에 더욱 주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줬으면 해요”

가상시나리오 - 2004년 총학생회 평가하다

총학, 학생들과 눈맞추기 성공!

2004년 2학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유 한해 학생과 우리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총학생회(총학)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번 총학은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동제와 세민제의 경우, 일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늘림으로써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학이 각 학과와 단대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의 의사를 좀 더 많이 반영했다

는 편이다. 이에 관해 장과대(동학·아랍어)에서는 "월도 빌리터와 공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과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행사 가 다채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학내 복지와 관련된 총학의 사업에 관해서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 3월 실시했던 등록금 투쟁에서 등록금이 인하되는 성과와 그밖에 학교시설개선 등 학내 복지 사안이 대부분 이뤄진 것에 대해 학생과 총학 모두 호평했다. 유해 등록금 투쟁은 총학과 일반 학생들이 하나 되어 이룩한 성과라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최충학(동양·중국어 00)군은 "지난 등록금 투쟁이 총학과 일반 학생들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학교시설개선에 있어서는 박희대(서양·한국어교과 02)군은 "서울메디터 도서관이 책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많은 도서들이 입고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등록금 투쟁 외에 외부투쟁에 있어서도 총학과 학생들이 뜻을 모아 함께 했다는 편이다. 이전에는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투쟁을 총학이 주도하고 학생들이 이끌어 가거나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해에는 학생과 총학이 뜻을 같이 하여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했다. 진정성(법·법학 01)군은 "예전에는 총학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고 학생들이 그것을 따라가길 원했던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과 총학이 이념적인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총학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듣는 자리를 통해 서로의 뜻을 조정함으로써 함께 투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2004년 총학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과 총학간에 의사소통이 많았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앞으로도 총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일반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총학의 노력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혜진 기자 mutute84@hanmail.net

외대로 떠나자

학생회 - 한국외국어대학교



누구보다 당차게
큰 세계와 맞설 꿈,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그 꿈을 펼치기에
한국이 있다면
한국외국어대학교로
오십시오.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지,
그 꿈에 세계를 더해
크고 튼튼한 미래로
키워드립니다.

내 꿈에, 세계를 플러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4학년도 원서 모집 | 입학지원서 접수 2003년 12. 15(화) ~ 12. 15(목) 09:00 ~ 17:00 | 원서접수 마감 2003년 12. 15(목) 17:00 | 원서접수 마감 2003년 12. 15(목) 17:00 | 원서접수 마감 2003년 12. 15(목) 17:00

www.hufs.ac.kr

정시모집입시설명회 ● 20(화) 11. 29(토) 14:00 용인캠퍼스 우석동 ● 2003년 12. 6(토) 14:00 서울캠퍼스 예경동 (당일 교통편 홈페이지 참조)

“노동자의 어머니”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씨를 만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씨를 만나

“죽도록 일해도 13만원 손에 쥐는 세상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순 없잖아”



어, 그때마다 포투리를 잡지 않으려고 노조를 한치의 부경도 없이 아꼈었어. 이 일이 정당하지 않으면 태일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니 말야”라며 그 당시의 어려움을 회고했다. 한평생 노동운동에 앞장서면서 그녀가 겪어왔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태일’을 비롯한 민주와 열사들의 노력 없었으면 지금의 세상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사

“30년 동안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이야”

람들이 우리는 노동운동에 목숨을 걸었어”라며 그녀는 감옥에 갇혔던 것만 여섯 번이 된다며 씁쓸히 웃었다. 오늘날 그들의 피 맺힌 노력의 결실이 얼마나 될까. “그때나 지금이나 기업주들은 노동자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 노동자들의 피땀을 가져다가 정치자금으로 쓰기 바쁘지. 이런 상황에 정부가 노동자들의 처지를 고려해주길 바라. 이것은 바보같은 짓이야”라며 그녀는 서민들은 1억 모으기가 힘이 드는데 정치인들은 100억, 200억을 횡령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한다고. 그녀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자는 죽을 수 밖에 없어
정부가 그들을 버림으로 돌아놓고 있잖아”

이러를 저러를 하고 싶지 않아. 늘상 말해 봤자 바뀌는 것이 없으니 내 속만 타는 거야”라며 한숨을 탄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얼마 전 고 김주익 한진중공업 자부정의 유가족을 만나러 부산을 다녀왔는데 “한달에 고작 13만원을 받으니 어찌 살아야겠냐. 식구가 다섯인데 말이야... 심지어 조합비조차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녀는 “노동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전태일을 뒤돌아 본다

“불평한 항재의 결의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장부만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결의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라. 너희들의 결을 따지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버치마...”(전태일 평전 중)

1970년 전 산업 노동자 평균 월임금은 노조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의 61.9% 수준인 1만7,831원.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51.6시간. 제조업 분야는 53.4시간이었다. 한해동안 산업재해자수는 3만7,752명에 달해 노동자 100명당 4.9명 꼴이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1970년 한해 사용자 측에 의한 각종 노동자 권리침해는 2만 1,285건이었다.

전태일이 1964년부터 일했던 창계천 평화시장 앞대 피복공장은 1960~1970년대 최악의 노동조건을 갖고 있었다. 남녀 공원이 식사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소음과 먼지로 뒤덮인 높이 1.5m의 공간에서 하루도 쉬지 못한 채 혹사당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 지친 몸으로 가져드는 잠자리에서는 심 여명이 잠잠을 자야했다. 전태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존중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치를 절한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

그에게 근로기준법은 이 같은 착취를 정당화하는 법이었다. 평화시장의 경험은 초등학교 중반 학력인 전태일을 의식화하고 운동가로 만들었다. 그가 예로부터 분신자살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1969년 평화시장 재단사 모았던 ‘바보회’를 만들어 노동실태 설문조사와 관계기관에 대한 진정을 진행했다. 바보회와 무관단체인 ‘삼동친목회’를 만들어 다량방 철폐와 노조결정 지원 요구, 근로조건 개선 시위를 시도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과 정부는 철벽적인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스스로 노동정의를 보장하는 기업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했다.

1971년 11월13일, 서울 동대문구 창계6가 평화시장 구름다리 앞길에서 불덩이 하나가 팔뚝을 타들었다. 22세, 서울 성북구 성문동 200번지, 어머니 및 2남 2녀의 장남, 직접 재단사, 월임액 0원, 키 161cm. 전태일은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 사망. 노동자 전태일은 그렇게 죽었다.

저서 및 기타
ian-freist@hanmail.net

김현지 기자
cedaepress03@hanmail.net

1970년 창계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계천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을 위해,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전태일 열사. 그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을 태운 지 33년이 되는 날이 며칠 남았은 11월 8일,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운동가, 모든 노동자를 만나 보았다. 불리는 이소선씨를 만나 보았다.

편집자

올해만도 벌써 5명의 노동자가 정부의 노동 정책에 죽음으로 항거했다. 33년 전 전태일 열사가 목숨을 바친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이소선씨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그곳, 동대문 평화시장을 마주보고 종로 한쪽에 전국민주노동자연맹총연합회(유가협)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었다.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처음 눈에 띄는 것은 한 벽면을 운동장 사진이 가득한 채로 장식하고 있었다. 사진은 1970년대 노동운동의 사진이었다.

“요즘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애가나 잘 해줄 수 있을지 모르... 가까이 보기에도 너무 힘겨워 보이는 이소선 씨의 첫 마디였다. 자그마한 체구의 그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의 할머니 같았다. 요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 현실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들었고 싶었다. 그러자 그녀는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우리의 노동 현실은 매우 심각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사회

적 논란거리가 자라는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자는 죽을 수 밖에 없어
정부가 그들을 버림으로 돌아놓고 있잖아

한숨을 많이 쉬었다. 그녀는 “태일이 친구들을 보면 많이 속상해.”라고 다시 말문을 뗐다. “살아있더라면 지금쯤 결혼하고 마느리도 볼 나이인걸. 그 속상함을 어찌 말로 표현해... 그래서 태일이 뜻을 따라 살았어.” 그녀는 한 평생 노동운동에 바친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이소선씨는 창계천 피복 노조를 결성해 이끌어 왔다. “여전히 탄압이 심했는지, 나라에서 감사를 수시로 받았

자 바뀌는 것이 없으니 내 속만 타는 거야”라며 한숨을 탄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얼마 전 고 김주익 한진중공업 자부정의 유가족을 만나러 부산을 다녀왔는데 “한달에 고작 13만원을 받으니 어찌 살아야겠냐. 식구가 다섯인데 말이야... 심지어 조합비조차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녀는 “노동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소중한 꿈이 자라는 곳,
그 꿈을 지켜주는
철이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해맑은 아이들 세상. 그 소중한 세상을 지켜주기 위해 폐회원은 늘 깊은 자리를 지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철, 철은 든든한 친구입니다.

posco
소리엔의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